

GLP 최종 보고서

미들스탠드 (Middle Stand) 팀

국제통상학과 양*수 (60****65)

국제통상학과 박*혁 (60****59)

국제통상학과 신*호 (60****71)



1일차 (인천공항 > 코트라 타이베이무역관 > 숙소)

1. 인천국제공항 > 타오위안공항

팀원들이 한 데 모여 인천공항에 오전 8시 50분여 도착했다. 공항의 분주한 분위기 속에서 여행의 시작을 실감했다. 탑승 수속 이후 바로 출국 심사장으로 향했지만, 예상보다 긴 대기 시간에 다소 당황했다. 다행히 스케줄에 큰 지장이 갈 정도는 아니었다. 천천히 줄을 따라 이동하며 창밖으로 이착륙하는 비행기들을 바라보았다. 모든 절차를 마치고 터미널에 들어서자 비로소 여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듯한 기분이 들었다. 면세점을 둘러보며 시간을 보내다가 창가 자리에 앉아 잠시 여유를 즐기다 보니, 어느새 탑승 안내가 흘러나왔다. 2시간 반의 비행 끝에 타오위안 공항에 도착했다. OT때 설명 받은대로 사전 입국 심사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한 뒤, 입국심사대로 향하자 지문, 안면 등록 과정 5분을 거치자 바로 입국이 허가되었다. 인천국제공항 못지 않게 외국인 관광객 친화적이고 편리한 입국 방식에 놀랐다.

2. 코트라 타이페이 무역관장님의 강연



1일차의 처음이자 마지막 일정이었던 무역관장님의 강연은 굉장히 인상 깊었다. 대만의 현 상황과 코트라 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라는 집단이 존재하는 이유, 그리고 코트라 타이페이에서 어떠한 업무들을 처리하는지 짧은 강연 시간 안에 다 담겨있었다. 강연 이후 이어진 청년 창업과 기업의 발전에 관련된 질문들 역시 훌륭하게 답변해 주셨다.

아침 일찍 인천공항에서부터 시작된 일정의 피곤함을 잊을 정도로, 특히 국제통상학과 3인으로 구성된 우리 팀에게 유의미하고 재밌었던 강연이었다.

2일차 (TSMC > 신주과학단지 > 고궁박물관 > 닝샤야시장)

1. TSMC Museum of Innovation



2일차 첫 일정으로 TSMC Museum of Innovation을 방문했다. 예정 시간이 일러 숙소에서 좀 일찍 출발했지만 시간에 맞춰 잘 도착하였다. 사실 TSMC라는 글로벌 기업의 일부를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기대를 많이 한 일정이었다. 공식 일정에 TSMC가 없었다면 사전 예약을 통해서 팀 일정으로 신주과학단지와 함께 4일차에 방문을 고려하기도 했다. 단체로 버스 대절을 통해 이동해 가능한 일정이었던 것 같다. 기대에 걸맞게 영어 가이드와 함께 TSMC의 역사와 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들을 수 있었다. TSMC(Taiwan Semiconductor Manufacturing Company)는 세계 최대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으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주요 고객사로는 엔비디아, 애플, AMD, 인텔, 퀄컴이 있다. TSMC는 1987년 대만 정부와 민간 투자자들의 협력으로 Dr. Morris Chang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세계 최초로 파운드리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하여 반도체 산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켰다. 이후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7nm, 5nm, 3nm 공정을 상용화하며 반도체 미세화 기술을 선도해왔다. TSMC 혁신박물관은 회사의 발전 과정, 반도체 제조 기술, 연구개발 역사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된 전시관으로,

방문객들이 반도체 산업의 흐름과 기술 혁신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TSMC가 대만에서 차지하고 있는 경제적 위상에 대한 부분이었다. 2022년 기준 대만 GDP의 약 10%, 대만 총수출의 약 13%, 대만 총 세수액의 약 9%를 TSMC에서 차지할 정도로 거대한 기업의 위상을 엿볼 수 있었다. 이외에도 반도체 제조 공정, 활용방안, 미래 지향점을 터치 스크린과 같이 사용자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코스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VR체험을 통해 TSMC가 지향하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반도체들을 실제로 경험해볼 수 있었다. TSMC Museum of Innovation의 끝에는 TSMC의 모토가 적힌 조형물이 있었다. “嚴峻挑戰的後面是美好的未來” 번역에 의하면 가혹한 도전 끝에 아름다운 미래가 있다라는 뜻이었다. 산업의 패러다임을 변화 시켰으며 그 위상을 잃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TSMC의 기업정신을 한 마디로 잘 함축시킨 것 같았다. 경영대학생으로서 성공한 기업가 정신을 느낄 수 있었다.

2. 신주과학단지



2일차 두번째 일정으로 대만의 중심 테크 클러스터인 신주과학단지에 방문하였다. 신주과학단지(Hsinchu Science Park, HSP)는 대만의 대표적인 첨단 산업 클러스터로, 반도체, 전자, 바이오테크, 통신 등 다양한 산업이 집약된 지역이다. 사전조사를 통해 알아봤을 땐 실리콘 밸리와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방문 후엔 우리나라의 대덕연구단지와 비슷하다고 느꼈다. 대덕 연구단지와 마찬가지로 최신 기술을 접목한 IT, 기술 기반 기업들이 많이 위치해 있었다. 다만 의외로 바이오, 의료 기술 또한 중점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것 같았다. 이에 대해 신주과학단지의 가이드님이 잘 설명해 주셨다. 기에는 반도체 산업이 중심이었으나, 이후 전자기기, 통신, 바이오산업까지 확장되며 대만 경제 성장의 핵심 엔진 역할을 하게 되었다. 현재는 TSMC, UMC, 미디어텍 등의 글로벌 기업들이 본

사 또는 연구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IT, 통신, SW의 경우 판교 테크노밸리, 기초과학, 바이오, 방산은 대덕연구단지로 분리가 되어있다. 또한 테크노밸리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스타트업과 같은 기업간의 연계가 활발하고, 대덕연구단지는 정부 출연 연구소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차이가 있다. 대만의 신주과학단지의 경우 대기업 + 연구소 + 산학협력으로 연결되는 융합형 클러스터의 느낌을 받았다. 가장 기억에 남는 점은 인공관절, 휴대용 X-ray, 자동화된 반도체 웨이퍼 기계였다. GLP 자료조사 당시에 우리가 중점으로 생각했던 부분이 대만의 중소기업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첨단 기계 산업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주 과학단지에서 실제로 잘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2차자료로 조사한 부분과 그로 도출해낸 가설들과 일치하는 점이 많다는 것, 현지 웹사이트 자료, 현지 통계자료를 활용한 것이 배경지식으로 잘 작용했다는 생각이 들어 뿌듯했다.

3. 고궁박물관



신주과학단지에서 버스로 이동해 고궁박물관에 방문했다. 가이드님께서 세계 4대 박물관으로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 영국의 대영박물관, 바티칸의 바티칸 미술관, 그리고 대만의 고궁박물관이라고 말씀해주셨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는 사람마다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였다. 대개 3대 박물관으로 루브르, 대영 그리고 러시아의 에르미타주 박물관을 뽑고, 4대 박물관 후보에 고궁박물관, 바티칸 미술관, 미국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을 뽑는다고 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만의 고궁박물관이 세계적인 박물관임에는 틀림이 없었고, TSMC 다음으로 기대가 되는 일정이었다. 약 70만 점 이상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다. 이 박물관은 원래 베이징 자금성(고궁)의 유물을 보관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국공내전 당시 국민당 정부가 중요한 문화재를 대만으로 옮기면서 현재의

박물관이 형성되었다. 1965년에 공식 개관한 이래, 중국 역사와 문화를 대표하는 예술품을 전시하고 있다. 연간 약 40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아시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박물관 중 하나이며 주요 작품으로는 청나라 황실 장식품이었던 옥을 정교하게 세공해 만든 옥배추, 석재를 동파육 모양으로 가공한 육형석, 송,원,명,청나라 시대의 고대서화 및 서예 작품들과 청동기 시대 유물들이 있다. 가이드님께서도 옥배추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주셨는데 아쉽게도 옥배추는 대만 남부에 위치한 2번째 고궁박물관으로 주기적으로 이동하는 기간이어서 직접 볼 수는 없었다. 주어진 시간동안 끊임 없이 구경하였지만 규모가 상당하여 1층의 청동기 및 도자기 전시실, 고대 중국의 공예 기술과 황실 유물과 2층의 회화작품 일부밖에 보지 못했다. 황실 유물의 경우 감탄을 하며 보았던 것 같다. 현대처럼 정밀한 설비가 있거나 3D프린터가 있는 것도 아닌데 목재, 상아, 석재, 청동을 정말 정밀하게 세공해내어 왜 황실 유물로 남아있는지 느낄 수 있었다. 운이 좋게도 2일차 일정 내내 날씨가 정말 좋았고, 박물관 외부로 나와 잠시 산책도 하였다. 곧바로 우리는 산책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박물관 건물을 가까이서 볼 때와 외부의 문과 함께 볼때의 위상이 다르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좋은 날씨와 함께 본 작품들을 기억하기 위해 팀원들과의 단체사진도 찍었다.

4. 닝샤 야시장



이후 저녁식사를 하고 숙소로 복귀하고 도보로 5분거리에 있는 닝샤 야시장에 방문했다. 사실 팀원과 중국 상하이에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상하이의 야시장은 생각보다 현대화가 많이 되어있어서 현지 느낌을 많이 받지 못했던 기억이 있어 이와 비교하며 구경을 했다. 우리 팀은 뭐든 그 곳에서만 할 수 있는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현지 로컬푸드를 먹고자하는 목적이 있었다. 다만 상상이상으로 로컬의 느낌이 강했다. 입구에

서부터 처음 맡아보는 냄새들이 있었다. 걸으면서 그 냄새들이 해산물, 취두부, 각종 향신료에서 나는 냄새임을 알 수 있었고, 우리 팀은 가장 유명한 굴전, 곱창국수, 취두부, 거위혀조림과 대만 소시지를 사서 호텔로 복귀했다. 호텔에서 금문 고량주와 함께 가장 기대하기도 했던 2일차 일정에 대해서 서로의 의견을 나누며 현지 음식들을 맛보았는데, 잊지 못할 맛으로 기억될 것 같다.

3일차 (예류지질공원 > 지우편)

1. 예류 지질공원



예류 지질 공원(野柳地質公園, Yehliu Geopark)은 대만 북부 신베이시(新北市) 완리구(萬里區)에 위치한 자연경관지로, 독특한 지형과 암석들이 유명하다. 3일차 아침, 피곤함이 가득했지만, 도착하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이색적인 풍경이 감탄을 자아냈다. 파도와 바람이 빚어낸 기묘한 암석들은 마치 아시아가 아닌 다른 대륙에 온 듯한 느낌을 주었다. 가장 유명하다는 여왕 머리 바위는 생각보다 작았다. 물론 자연이 만든 섬세한 형상은 인상적이었다. 곳곳에 자리한 버섯 바위들과 촛대 바위는 오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관광객들로 붐볐지만, 탁 트인 풍경 덕분에 답답함보다는 여유로움이 느껴졌다. 사진을 찍으며 하나하나 감상하다 보니 시간이 금세 지나갔다. 조원들 다 함께 해안을 따라 걷다 보니 멀리서 파도가 부딪히는 장관이 펼쳐져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다. 자연의 위대함을 온몸으로 체감한 순간이었다.

2. 지우편



중식 이후에는 버스를 타고 1시간여를 이동하여 '지우편'에 방문했다. 지우편(九份)은 관광지로 유명한 산악 마을로, 과거 금광 마을에서 시작해 현재는 대만을 대표하는 명소 중 하나로 발전한 곳이다. 도착 후 계단을 한참 올라갔고,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바다 풍경이 인상적이었다. 골목길을 따라 붉은 등이 줄지어 걸려 있어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가게들은 저마다 아기자기한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어 구경하는 재미를 더했다.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은 듯했다. 좁고 가파른 골목길과 계단식 거리가 일본의 전통 마을을 떠올리게 했다. 특히, 붉은 등이 켜진 풍경은 일본의 기온 거리나 온천 마을과도 비슷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오래된 건물 중 일부는 일본식 건축 양식을 띠고 있어 독특한 느낌을 주었다. 곳곳에 일본풍 간판과 소품들이 눈에 띄었으며, 거리의 분위기 자체도 일본과 대만 문화가 어우러진 듯한 인상을 남겼다. 골목길을 따라 걷다 보면 감각적인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명소들이 곳곳에 숨어 있었다. 봄비는 거리 속에서도 곳곳에서 풍기는 옛 정취 덕분에 한층 더 운치 있는 분위기가 연출되었다. 마을을 한 바퀴 돌아본 후, 낡은 카페에 들어가 대만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내려주신 핸드드립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여유를 즐겼다. 창가 너머로 보이는 골목길과 붉은 등을 바라보며 조용한 시간을 보내니, 지우편의 정취가 한층 더 깊게 와닿았다.

4일차 (총통부 > 타이베이시립대 > 시먼딩 > 타이베이시립동물원 > 타이베이 101)

4일차 아침, 호텔의 위치와 일정 상 미리 계획했던 대만 국립 대학교 대신, 근처에 위치한 대만 시립 대학교에서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천천히 대만 시내의 풍경을 감상하며 걸음을 옮기던 중, 뜻하지 않은 장소를 방문하게 되었다.

1. 중화민국 총통부



이동 경로 상에 위치한 대만의 총통 '라이칭더'의 공식 관저인 '중화민국 총통부'였다. 공식 관저 답게 정문에는 경비가 매우 삼엄하였지만, 견학을 위한 일반인 출입문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 미리 예약을 하면 우리 같은 관광객들도 견학이 가능한 것으로 보였다. 대만에 대한 조사를 할 때, 친미 성향의 정책을 추진하는 '라이칭더' 총통의 기조에 대해 중점적으로 고려하였기에 총통의 관저를 실제로 관광 할 수 있어 유의미하였다고 생각하였다. 이 후 10여 분 정도를 더 이동하여, 대만 시립 대학교에 도착하였다.

2. 타이베이 시립대학교



대만 시립 대학교를 방문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블록화 시대와 중소기업의 연관성에 대한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학생들은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에 대한 부분을 심도 있게 알고 있지는 않았지만, 블록화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제시했다. 일부 학생들은 지역 경제 활성화의 기회로 바라본 반면, 다른 학생들은 무역

장벽과 경쟁 심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설문조사를 통해 대만 청년층이 경제 흐름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인터뷰에 흔쾌히 응해준 두명의 학생을 포함해, 미리 만들어둔 구글 폼을 이용한 설문조사는 13명의 학생들이 참여해주었다. 아래는 인터뷰를 진행한 두 명의 학생과의 대화 내용이다.

Q. '블록화'라는 'Term'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나?

학생 A: 들어본 적은 있지만, 정확하게는 모른다.

학생 B: 잘 모른다.

Q. (블록화에 대한 간단한 설명 이후) 대만에서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입지는 어느 정도인가?

학생 A: 매우 크다. 작은 기업들이 많고, 그 곳에 다니는 사람들도 많다.

학생 B: 나 역시도 중소기업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 곧 일을 시작할 예정이다.

Q. 한국과 대만의 중소기업의 구조와 비율이 굉장히 유사하다. 혹시 알고 있나?

학생 A: 최근에 한국 경제에 대한 리포트를 읽은 적이 있다. 조금은 알고 있었다.

학생 B: 한국이 대만과 굉장히 비슷한 경제 구조를 띤다고는 알고 있었다.

Q. 앞으로의 블록화 시대에서, 대만의 성장을 위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중 어느 쪽이 더 큰 역할을 할 것 같나?

학생 A: 약간 퀴즈 같다. 나는 중소기업이라고 답하겠다.

학생 B: 블록화를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대만의 대기업들이 큰 역할을 할 것 같다.

Q. (퀴즈는 아니고, 단순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임을 다시 밝힘) 편하게 답변해주면 된다. 대만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나?

학생 A: 정부의 지원이라고 생각한다.

학생 B: 가장 중요한 것? 잘 모르겠지만 돈이 많으면 회사의 발전이 수월할 것 같다.

아래는 13명이 응답해준 구글폼의 설문조사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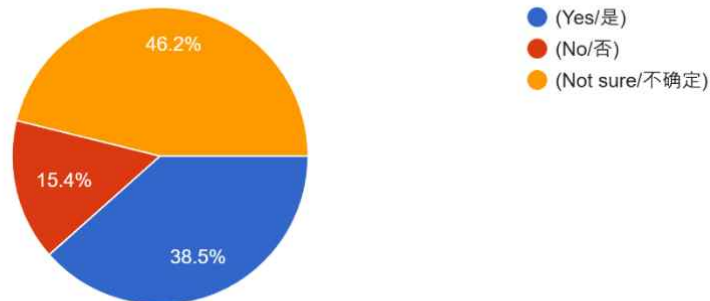
-What kind of impact do you think the blockchain era will have on Taiwan's economy? -您认为区块化时代会对台湾经济产生怎样的影响？

응답 13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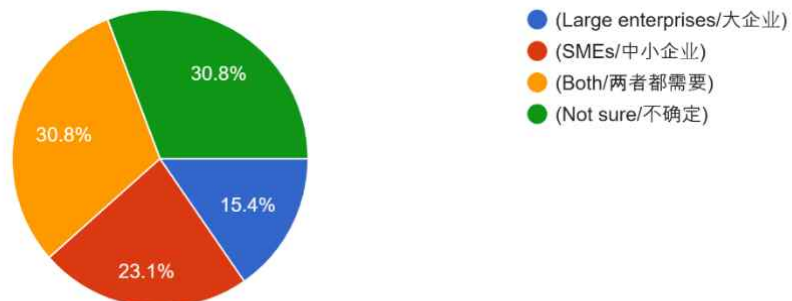
- Do you believe that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play a critical role in the blockchain era? -您认为中小企业（SMEs）在区块化时代中是否起着关键作用？

응답 13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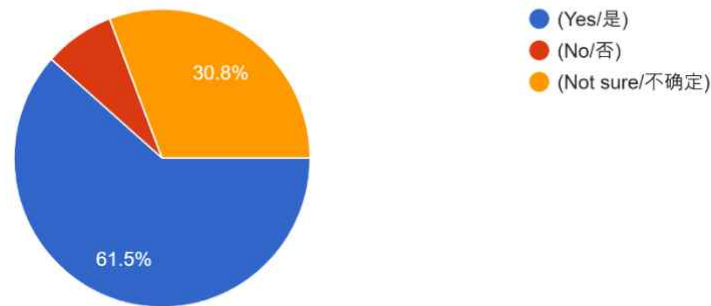
-Which do you think requires more support in the blockchain era: large enterprises or SMEs? -在区块化时代，您认为大企业 and 中小企业中哪个更需要支持？

응답 13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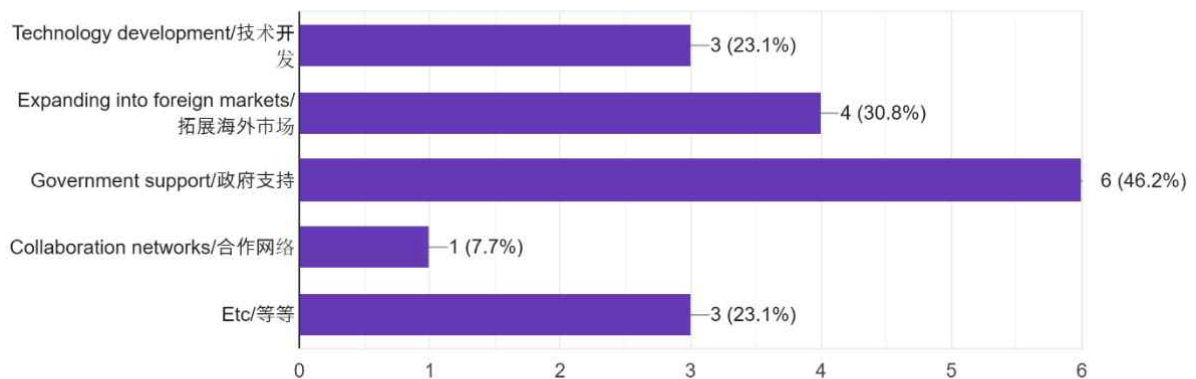
- Have you ever heard of the term "blockchain era"? - 您听说过“区块化时代”这个词吗？

응답 13개



-What do you think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for Taiwanese companies to succeed internationally in the blockchain era? -您认为台湾企业在区块化时代国际上取得成功的最重要因素是什么？

응답 13개



설문조사 결과 생각보다 잘 모르겠다는 답변이 많았다. “질문지 작성과정에서 응답자들의 배경지식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팀 내의 피드백도 있었다. 결과에 대해서 토의해본 결과 대만 대학생들은 블록화 시대가 자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 경향이 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을 크게 느끼고 있었다. 특히, 중소기업의 역할과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명확한 의견을 형성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블록화의 실질적인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대만 기업이 블록화 시대에서 국제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혔으며, 해외 시장 진출과 기술 개발도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었다. 이는 대학생들이 블록화 시대의 기업 자체적인 기술의 발전보다는 정책적 지원과 글로벌 시장 접근성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블록화와 관련된 교육 및 정책적 방향 설정이 대만 경제의 혁신과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특히 중소기업의 참여와 활

용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처음 진행해본 대면 인터뷰와 설문 조사였기 때문에 미흡했던 점이 많았던 것 같다. 앞으로 우리 팀이 어떠한 인터뷰를 하던 대만에서 현지인과 인터뷰했던 경험을 기억하며 더 나은 자료를 수집할 수 있을 것이다.

3. 시먼딩 , 까르푸



이후, 10분 정도 도보 이동 후 시먼딩에 도착한 우리는 시먼딩이 어떠한 이유로 대만의 명동이라고 불리우는지 단번에 알았다. 다양한 팝업 스토어, 영화관, 스티커 사진점, 글로벌 브랜드 판매점으로 가득하고 다양한 국가에서 온 관광객과 젊은 사람들로 거리가 가득하였다. 특히, 메인 전광판에 한국의 유명 아이돌 그룹, 이다혜 치어리더가 단번에 눈에 들어와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과 뿌듯함을 내심 느낄 수 있었다. 시먼딩의 사진 스팟으로 불리우는 무지개 횡단보도에서 기념 사진을 찍은 후 우리는 '행복당'이라는 버블티 맛집을 방문하였다. 가격은 대만 달러로 120 NTD(약 5500원) 정도로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다 보니 웨이팅 줄 또한 길었다. 하지만, 테이크 아웃 전문점이다 보니 회전율이 빨라 금방 주문을 할 수 있었다. 주문을 할 때 대만 전통 방식으로 통 안에 있는 막대기를 뽑아 신년 운세를 볼 수 있어 제품이 나오는 시간 동안 지루하지 않게 기다릴 수 있었다. 또한, 손수 펄을 만들고 삶는 과정과 제조 마지막에 흑설탕을 토치로 그을리는 과정을 통유리창으로 보여주는 것이 제조 과정에서의 자신감이 보였다.

이후 우리는 시먼딩에 위치한 대만의 유명 쇼핑몰인 '까르푸'에 방문하였다. 까르푸에 도착하여 처음 본 것은 '관광객이 까르푸에 방문하여 반드시 사가야 하는 것'이라는 코

너가 따로 있는 것을 발견하여 확실히 대만이 관광객들을 위한 시설이나 관광 상품이 잘 구비되어 있는 것을 느꼈다. 또한, 바로 옆에 자신이 어느 국가에서 왔는지 스티커를 붙이는 간단한 설문조사를 하는 공간이 존재하였는데 일본, 중국 본토, 미국 등 다양한 국가가 있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압도적으로 대한민국에 붙어 있는 스티커가 많이 붙어 있는 것이 인상 깊었다. 우리는 대만 여행 시 인기 있는 기념품으로 누드 크래커, 핑리수, 밀크티 등을 구매하고 이전 일정이 끝난 후 숙소에서 조원들과 함께 먹었던 대만의 유명 고량주인 금문 고량주를 구입하였다. 토양이 비옥하여 고량주의 원료인 수수의 재배가 매우 용이하고, 지하수의 수질이 뛰어나 우리가 이전에 먹었던 중국산 고량주와는 다른 맛이 느껴져 색다른 경험이었다.

4. 타이베이시립동물원



아침부터 컨디션 난조를 보이던 조원 한 명을 택시를 통해 숙소로 투숙하게 한 후 우리는 아시아에서 최대급 규모를 자랑하는 '타이베이 시립 동물원'에 방문하였다. 택시를 통해 30분 정도의 이동을 하여 동물원에 도착한 후 입장권을 결제하였다. 입장권은 성인 기준 60 NTD(약 2500원) 정도로 매우 저렴하였고 동물원 전체 지도를 받아 동물원의 지리를 파악하였다. 기온이 매우 따뜻하여 별다른 장치 없이 열대우림, 사바나 등에 서식하는 동물들을 관리하는 것, 부지가 매우 커서 동물들의 활동 공간을 서식지와 비슷하게 설정하고 동물들의 스트레스를 최소화 하는 모습을 보여 매우 인상적이었다. 대한민국의 동물원에서는 보기 힘든 코알라, 판다, 말레이맥 등 다양한 동물들을 관람할 수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동물원 내 운영하는 셔틀버스가 존재하여 규모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지역으로 편하게 이동 가능하였다. 승차권도 5 NTD(약 200원)으로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탑승이 가능하고 생각보다 속도가 빨라 버스를 타는 재미가 있었다. 타이베이 시립 동물원은 접근성도 좋고 가격도 저렴하였고 동물의 다양성, 동물원의 규모 등도 매우 커서 대만을 여행 가는 사람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관광 명소였다.

5. 타이베이 101타워



기준에 조원들끼리 석식을 해결하는 방법에서 다같이 식사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일정이 변경되어 시간이 조금 남은 관계로 우리는 대만의 제일 가는 관광명소인 타이베이 101 타워에 방문하였다. 타이베이 101 타워는 2010년 부르즈 할리파 완공 이전까지 제일 높은 빌딩이었으며, 대만의 전통적인 대나무 모양의 빌딩으로 대만에서 자주 일어나는 지진과 태풍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초고층 빌딩이다. 시간이 지나며 노을이 지는 시간대가 되자 101 타워에 불이 들어오며 더욱 예쁘고 웅장한 타워를 관광할 수 있었고 대한민국의 초고층 빌딩인 롯데타워와의 비교를 하며 관광하며 뜻 깊은 시간이었다.

5일차 (평리수 공장 > 타오위안공항 > 인천국제공항)

1. 웨이거 평리수 공장



핑리수는 대만을 대표하는 전통 디저트로, 파인애플 잼이 들어간 버터쿠키 형식의 과자이다. 우리는 대만의 3대 핑리수 제조업체 중 한 곳을 방문하여 핑리수가 만들어지는 제조과정, 역사, 종류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직접 만들어보는 경험을 하였다. 처음에는 반죽을 맨손으로 만지는데 있어 거부감이 있고 어린 아이들이 하는 활동이 재미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핑리수를 만드는 과정에서 반죽하는 과정에 재미를 느끼고 내가 직접 먹을거라는 생각에 모양이 이쁘고 균일하게 만들고자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핑리수가 구워지는 동안, 우리는 핑리수 제조사에서 만든 기성품을 시식하며 입맛에 맞는 핑리수 몇 종류를 골라 직접 만든 핑리수와의 맛 비교를 위해 구매를 하였다. 대만에 방문하면 무조건 사가야 한다는 핑리수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 의미 있었고 오랜만에 동심으로 돌아가 무언가를 만드는 것에 흥미를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다.

2. 마치며

이번 대만 GLP 탐방을 통해 우리는 사전에 한국에서 수행했던 2차 자료 수집과는 차원이 다른, 보다 유의미하고 생동감 있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 먼저, 한국에서 진행한 2차 자료 조사를 통해 대만의 경제, 문화, 관광 산업 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형성할 수 있었지만, 실제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관찰한 정보들은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했다. 현지 대학생들과의 설문조사를 통해 대학생들이 느끼고 생각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대만의 현재 상황 등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우리가 이전에 세웠던 가설에 대한 답변을 얻을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GLP 대만 탐방을 통해 기존의 2차 자료와 현장 조사와의 상호보완적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이번 탐방을 통해 향후 분석 및 보고서 작성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여 매우 뜻 깊고 배워가는 것이 많고 재미까지 겸비한 시간이었

다.